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신학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처>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내 마음속 부처 항상 놓치지 마세요

본래 면목을 깨닫고 싶습니다

문 스님께서는 일상생활이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주인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주인공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의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강하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좌선인가요? 저도 청정한 제 본래 면목을 보고 싶고 깨닫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추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세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세계로 오르느냐 아니면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이 환상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돌아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어떤 것도 영원하고 영구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우리들 안에 꼭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나의 근본일 뿐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

계는 모든 것이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지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필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수억겁을 살면서 이루어놓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인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소심하고 낙담한 마음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나의 인연과 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러한 관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근데 나의 근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아나가는 것입니다. 용공로에 현식, 잡식을 다 넣기만 하면 모두 재생되어 나오듯이 나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진실하게 믿고 놓아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분명히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질문하신 분이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실재를 해 보세요. 나에게 들고나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 나의 근본에 놓고 믿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그래, 내 안에 분명히 주인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고 그 주인공을 더 느껴보려고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근본이 있을 게 없을 게를 머리로 이론으로 따지니 말고 정말로 한번 믿어서 체험을 해보세요. 알았지요? 꼭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도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불·법·승에 진정으로 귀의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성부처에,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 자기의 한성각과, 또는 자기 한성각에 의한 몸의 움직여짐, 이것이 자성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직여지는 것과,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성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되죠. 자성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불(佛)도 자기하고 생명이 돌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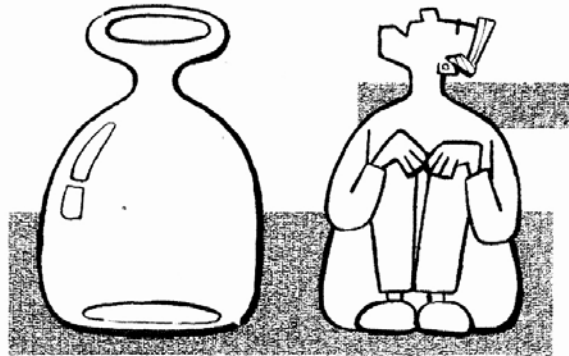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주인공에 믿고 맡겨야 고통 사라져 근본향한 마음엔 습도 업도 없어

니죠. 불(佛)이 생명이니가,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교(敎)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교(敎)구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믿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그냥 진리일 뿐이요, 불·법·승은 불과 법과 승이 다 한데 합쳐서 내 자성의 삼보와 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도 돌이 아니요, 몸도 돌이 아니요, 생각도 돌이 아니요. 만약 이걸 알고서 삼보에 귀의했다 한다면 법당에 와서 절을 하든지, 삼장례를 하든지, 칠장례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은 부처님 법과 같고, 부처님 모습도 내 모습과 돌이 아니라고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는 부처님과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자신으로 한데 합쳐서 나가라는 겁니다. 항상 돌이 아니죠. 그러나 형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

게 되고, 자기 형상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부처님 형상을 무시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체를 나의 근본과 돌 아니게 알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생한 조상도 천도 되는지요

문 97년도 선원에서 아버님 49재와 100재, 시댁 조상님들 천도재를 지낸 이후 계속 의문이 났는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가지지 않아 여쭙니다. 조상님을 천도해 드릴 경우 조상님께서 다시 몸을 받고 현생에서 태어나셨을 경우에 천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나의 조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도 천도재를 지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하는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 지리, 차이에 있어서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지면 사대(四大)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본래 고정되게 내 부모, 내 자식이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본다면, 한 찰나에 이쪽에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한 찰나에 저쪽에 태어나서 자식이 되고, 또 이쪽에 태어나서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어서 전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걸 몰라서 지금 현생 부모만 내 부모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 때, 보이는 부모의 곁대기에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근본과 내 근본이 돌이 아니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체와 직결되어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천도재를 올리는 내가 따로 있고 천도를 받는 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도재를 올리는 나와 받는 조상이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손가락 밥을 먹을 때 위(胃)만을 위해서 먹고, 장(腸)만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본래 공생(共生), 공심(公心), 공용(公用), 공제(共體)기에 공양을 하면 공식(共食)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해서 자우인이 된다면 나와 연결된 사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환상의 굴레를 벗어버리세요.

오죽했으면 사생의 자부인 부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길가에 놓여진 뼈두더기에 절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리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직결되어 전달되는 이 마음의 도리를 아실 것 아닙니까.

인연은 실체가 있습니까

문 불교에서는 세상만물이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인연을 생기는 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연은 실체가 있는지요? 또 인연과 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질문 중에 병숙의 새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병을 깨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옳은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법

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단을 삼보라고 해서, 절을 할 때도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스님의 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 여러번에서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려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중생이니가 '한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그러니 잘 해라.

이렇게 말했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도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불·법·승에 진정으로 귀의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성부처에,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 자기의 한성각과, 또는 자기 한성각에 의한 몸의 움직여짐, 이것이 자성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직여지는 것과,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성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되죠. 자성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불(佛)도 자기하고 생명이 돌이아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 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絶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곤-헤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 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석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 등
- 공공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투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담
-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헤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펜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타지파고다, 보타타우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천전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터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 등.

古都의 땅을 찾아 ...
日本 佛教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고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 발 일 : 9/1, 13, 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恨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댜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일만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쇼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롬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 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 시황제의 병마중...비림, 대인림 등 탐방

- 일 정 : 서울-서안-돈황-양관-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